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원입주 및 현판식 거행

창립 12년만에 전기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 김준철)는 지난 3월 4일 창립 12년만에 전기진흥회관(서초구 방배동 소재)을 마련하고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 인사들을 초청하여 현판식 및 입주식 행사를 거행하였다.

김준철 회장은 현판식 행사를 마치고 가진 연회에서 “이번 진흥회 회관 마련은 우리 진흥회의 큰 획을 긋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다”면서 “이를 계기로 더 큰 각오와 힘찬 모습으로 전기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이며, 앞으로도 회원사와 유관기관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흥회 김준철 회장을 비롯하여 공창덕 상근부회장, 전력기술인협회 안인순 회장, LG산전 이경행 부사장, 디이시스 이창근 사장, 성진전기 이종한 사장, 선도전기 김방규 사장, 영화산업전기제작소 공호영 사장, 산일전기 박동석 사장, 동남물산한기중 부사장 및 회원사 임직원과 언론사 출입기자 등이 참석하여 입주를 축하해 주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 1)이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PL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전기기기 부문 PL 교육기관을 한국전기산업진흥회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2001년부터 PL시행에 대비하여 전기기기 제조업체 및 관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기기기 PL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체계적·표준화된 PL교육을 실시하여, 전기업계의 제조물책임 대응력을 제고하여 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한전 민수 등 수요처에 전기기기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키로 하였다.

**LG산전(주)**

1500만弗 규모 인버터 제품 해외  
공급계약

LG산전(대표 :金正萬 www.lgis.co.kr)은 최근 해외 4개국에 총 1500만弗 규모의 인버터(Inverter: 전동기속도제어장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산전은 러시아 예스티시(STC Drive Technique)社와 5년간 1000만弗 규모, 스페인 파워 일렉트로닉스(Power Electronics)社와 4년간 360만弗 규모, 독일 퀴르(Kueenle)社와

2년간 90만弗 규모, 포르투갈 조마르카(Jomarca)社와 1년간 50만弗 규모의 인버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G산전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인버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언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디스플레이를 갖춘 제품으로 신형 인버터 시장인 러시아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산전 해외사업부장 박동원 상무는 “프랑스 델타(Delta)社와도 인버터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기술 종주국이며 일본업체들이 수십년 동안 철옹성을 구축해 온 1700억엔 규모의 일본 자동차기기 시장에도 국내업체로는 처음으로 역진출, 올해부터 본격 공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산전은 최근 산자부의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기반기술자금 15억원을 지원받는 등 총 40여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홍익대학교, 동방FC(주), 영진금속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362kV 63kA 1점절(点節)인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ar)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차단 점절수 2점절인 기존 가스절연개폐장치와는 달리 이번 제품은 362kV 용량으로는 세계 최초로 1점절

로 개발되어 부품수를 대폭 절감하고 성능 및 신뢰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362kV급에서는 국내 최초로 수직형 차단부를 채택하여 기존 제품에 비해 설치 면적을 약 25% 축소하였다.

이번 신제품은 국제 규격인 IEC 규격을 적용, 세계적인 시험기관인 네덜란드 케마(KEMA)에서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신뢰성을 확보한 제품이다.

LG산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 개발은 국내 독자 기술로 경쟁력있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신제품으로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연간 200억원의 매출 증대 및 수십억원의 기술로 열타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전력기술(주)

#### ‘고리원전 2호기 소내주전산기’

##### 구매사업 수주

**한** 국전력기술은 지난 2월 26일 실시한 ‘고리원전 2호기 소내주전산기’ 구매와 관련한 공개입찰에서 한수원(주)로부터 동 사업을 수주하였다. 이번 입찰은 국제지명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우리기술(주)와 경합을 벌여 낙찰 받은 것이다.

소내주전산기는 발전소의 여러 변수들을 감시하는 컴퓨터계통으로 데이터수집계통(DAS), 발전소컴퓨터계통(PCS)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수집계통은 발전소 여러 계통에서 수집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 등을 처리하여 발전소 컴퓨터계통에 전송하며, 컴퓨터계통은 데이터수집계통을 통하여 입력된 신호들을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 모니터, 지시계,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발전소 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하고 웹서버를 통하여 일반 사무실에서도 운전상태를 감시하거나 발전소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단말기가 11대 설치된다.

한국전력기술은 소내주전산기 설계와 관련하여 고리 1호기 소내전산기 교체공사를 턴키로 수행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표준형 원자력발전소에서 계통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인허가 지원 및 시운전 지원 등 풍부한 설계 경험들이 이번 수주에서 크게 인정을 받아 수주에 성공하였다.

사업의 주요 역무에는 고리 2호기 기존 소내주전산기 교체에 필요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기자재의 설계, 제작, 공급, 공사설계, 인허가 지원 그리고 기본,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교육, 서류작성 및 제출 등이 포함되어 기존 사업범위보다 확장되어 추후 수행될 가동원전의 I&C 패키지 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다.

본 사업은 한국전력기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동중인 발전소의 O&M과 I&C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개발을 추진하여 수주에 성공하였으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국내 가동원전인 고리 3, 4호기, 영광 1, 2호기 및 울진 1, 2호기 등의 소내주전산기 교체사업과 I&C 패키지 관련사업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노후화된 발전소의 기기교체사업 등 해외 가동중인 발전소의 O&M 사업 개발에도 시금석이 될 것이다.

### 두산중공업(주)

#### 발탁 인사로 직원 기 살리기

**두** 산중공업(www.doosanheavy.com)은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고졸 사원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관리직으로 직계를 전환할 수 있는 등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3월 1일 정기인사에서 고졸 기능직 사원 중 대학 위탁교육 이수자 3명에 대해 대졸 공채 사원 대우인 기술직(갑) 사원으로 직계를 전환했다.

이에 따라 오종석 4급 반장(43세, 발전기공장)은 과장으로, 금창영 6급 사원(36세, 환경PM)은 3급 대리료, 김홍철 6급 사원(30세, 터빈공장)은 4

급 사원으로 직계전환 및 승진됐다.

이들은 지난 '98년 3월 회사에서 근무경력 5년 이상의 고졸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산업기술대 위탁교육생 사내 공모에서 선발되어 일반 대학생들과 똑같은 정규 과정을 거친 뒤 지난 2월 졸업했다. 이들의 학업 성적은 모두 평균 A0 이상이다.

두산중공업은 이들에게 4년간 등록금 및 수업료, 교재비 전액을 지원한 것은 물론 임금도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또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회사의 명예를 높인 점을 높이 평가해 4년간의 학생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었다.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은 핵심 사업장인 발전기공장에 근무하는 이상원 직장(43세)을 터빈버켓과 생산과장으로 발령했다. 이 직장은 울릉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79년 두산중공업에 입사, 수평보링머신(HBM)을 이용한 가공업무를 해오다 '90년 터빈 버켓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 터빈 버켓 제작 업무를 계속해오고 있는 최고의 기술자이다.

이 직장은 24년간의 직장생활 동안 '98년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인 금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기능직 사원의 최고봉인 기능장(기계가공)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이 직장은 생산과장으로서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직원들과 푹푹 뭉쳐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한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발탁인사의 배경에 대해 “두산중공업 버켓 가공업무를 산증인이라 최고의 기술자로서 미국 GE사 제품 등 현 프로젝트의 원활한 제작과 향후 차세대 터빈 개발에 적격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인사정책을 추진, 회사 내부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발탁인사를 확대해 고졸 기능직 사원이라도 능력에 따라 공장장이나 부서장으로서의 승진도 가능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LG전선(주)

광사업 쏘부문 'TL 9000' 인증 획득

LG전선(대표 : 권문구 [www.lgcable.co.kr](http://www.lgcable.co.kr))은 최근 美國의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통칭 UL)로부터 광사업부문에 대해 국제품질인증 'L 9000 R.3.0'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UL은 108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안전 및 품

질시스템 인증기관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TL 9000 규격은 ISO 9000에 기초해 83개의 첨단 정보통신산업 품질특성을 추가하여 지난 '99년 이후부터 전자통신 업계에 적용되는 국제 인증 규격으로 기존 품질인증과는 다르게 전자통신 산업분야의 특성에 따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로 구성되며, 특히 각 분야별 시스템의 이행 결과에 따른 제품의 품질수준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성 있는 품질 인증규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증획득으로 LG전선은 선진 품질경영 시스템의 정착과 더불어 납기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 제품 서비스 향상 등 고객의 신뢰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LG전선은, 기존의 TL 9000 R2.5를 업그레이드한 R3.0기준으로 획득했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인증획득 업체들이 케이블 부문이나 설계부문 등 부분적으로만 인증을 받아왔던 것에 비해, 광섬유와 광케이블(싱글모드, 멀티모드)의 모든 제품 각각에 대해 설계(디자인), 제조 부문에 관한 인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美國 아틀랜타의 루슨트에 이어 두번째로 광사업 전부문에 걸쳐 품질 인증을 받게 됐다.

※LG전선 인증 Scope :

The design & manufacture of Optical Fibers & Optical Fiber Cables

이로써 LG전선은 지난 '99년 美國 텔코디아 연구소로부터 光사업 부문의 품질인증을 받은 데 이어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 회사 해외사업부문의 이재선 부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LG전선의 광섬유와 케이블이 설계, 제조 등 전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미시장 침체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광케이블의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 현대중공업(주)

협력회사와 「윤리경영」 다짐

現代重工業(대표: 崔吉善)이 창사 30주년과 계열분리 원년을 맞아 창업을 표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협력회사와 함께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해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모기업으로부터 주입식 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수동적인 윤리경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협력회사 스스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깨끗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 상호 신뢰를 높이고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現代重工業은 지난 3월 7일부터 우선 1차 주력 협력회사인 280여개사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 방안」 워크숍(Work-shop)을 실시했다.

이번 윤리경영 워크숍은 모기업의 자재부문 경영방침 및 구매통합시스템(HiPRO SYSTEM) 운영안내, 각 사업부 시황 및 구매계획, 제조물 책임법 소개, 윤리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전달할 예정이며, 現代重工業은 3월 14일까지 1차 협력회사에 대한 워크숍이 끝나면 곧이어 2,400여 전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실천방안을 수립, 이를 강력히 실천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올 초 「가장 윤리적인 회사가 최고의 회사」라는 믿음으로 한차원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現代重工業 윤리경영」을 제정,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자재부문에서의 투명경영을 위해 「구매 윤리 실천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오는 등 협력회사와의 투명한 거래 관행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자재부문 총괄 金修卿 전무는 이번 협력회사 「윤리경영」과 관련, 「협력회사와의 자재구매 등 거래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으로 모든 협력회사가 크게 반기고 있다」며, 「윤리경영이 곧 회사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한국전기연구원

전기환경송전연구그룹, 「극저주파 전자계 기준(안)」워크숍 개최

전 력연구단 전기환경송전연구그룹(그룹장 명성호 박사)은 지난 2월 28일 전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산자부, 한전 송변전처, 전기연구원, 대학 교수 등 국내 생체영향 전문위원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극저주파 전자계 기준(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주관 아래 대한전기학회 극저주파 전자계 생체영향전문위원회가 주최하였으며, 미국 전력연구소(EPRI)의 Rob Kavet, ScD, MEE 박사가 EPRI's EMF Program에 대해 특별 강연을 하였다.

아울러 Session I과 II에서는 전자계의 생체영향과 전자계의 기준(안)에 관한 논문이 각각 4편씩 발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발표논문에 대한 정책토론도 있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의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전기학회 전자계 생체영향전문위원회 활동 소개(박종근 서울대 교수, 대한전기학회 생체영향전문위원

장) △전자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한국 전자과학회 활동 소개(김운영 단국대 교수) △극저주파 전자계와 생체의 상호작용(강위생 서울대 교수) △극저주파 전자계 생식독성실험 및 안전성 평가(화학연 정문구 박사) △전자계 민원현황 및 사회적 비용고찰(정시환 한전 부장) △극저주파 전자기장 측정 표준화(이동일 전력연구원 부장) △극저주파 전기장 인체안전기준(민석원 순천향대 교수) △극저주파 자기장 인체안전기준안(명성호 박사)

**한전KDN(주)**

올 R&D투자 170% 확대

한 국전력계열의 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전KDN(사장 鄭然東 www.kdn.com)은 올해에는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주관의 정책과제들을 포함한 자체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산학연 연구개발과제도 함께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한전KDN은 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 투자비를 86억원으로 지난 해의 32억원보다 54억원(169%)을 증액, ▲디지털 영상감시시스템 개발 ▲B2B 전자지불보안 연구 ▲무선검침 관련 개발 등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키로 했다.

또한 한전KDN은 산학연 공동 연

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객원연구원을 초빙, 외부 우수인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 해 한전KDN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연구용역인 전력구조개편에 따른 전력부문 통계D/B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등 모두 6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들 연구과제 중에서 변압기 부하 감시 시스템(파워지킴이)과 AMR(원격검침)시스템 개발은 지난 해 60여 억원의 매출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한전KDN은 오는 5월 사내기술경진대회를 열어 원격검침 등 전력 IT분야의 신기술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전선(주)**

『말레셀라 대한』남아공에서 대형 광케이블 수주

대한전선(대표:이청용)의 합작투자회사 말레셀라대한일렉트릭케이블사가 남아공 텔콤사에 광케이블을 대량 공급한다.

M-TEC은 최근 남아공 제1통신사업자인 텔콤사가 실시한 광케이블 국제 입찰에 참가, 세계적인 해외 케이블 업체와 현지 남아공 업체들과 경쟁해 총물량의 60%를 수주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연 500,000fkm씩 3년에 걸쳐 총

1,500,000fkm를 공급하게 될 이번 물량은 계약상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해 실제 공급기간은 총 5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M-TEC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M-TEC은 곧 사업자 선정이 예상되는 제2통신사업자에 100,000fkm, 민수업체와 인접 아프리카 국가 등에 150,000fkm의 공급계획도 갖고 있어 올해 이 부문 총 공급물량은 약 800,000fkm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M-TEC은 대한전선이 광섬유에 대한 해외수주를 위해 아프리카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한 대한전선 해외계열사로, 설립초기 남아공에서 4위에 해당하는 전선업체였으나 광케이블 매출 호조를 계기로 현지 진출 2년 만에 2위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M-TEC이 이번에 수주한 광케이블의 모재인 광섬유는 대한전선이 지난 2000년 7월, 광섬유 전문생산업체로 전문계열화한 읍토매직이 전량공급하게 되어 있어, 최근 세계 IT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내 IT경기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얻은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 수주를 계기로 대한전선과 읍토매직은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광섬유 시장을 확보하게 돼 광케이블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